

구자욱과 열애설 큰 교훈 남겼어요

KBS2 주말드라마 '파랑새의 집' 마친 채수빈

친한 친구지만 언행에 더 신경했어야
첫 여주인공...선배님·선생님들의 힘

'시청률 효과'로 불리는 KBS 2TV 주말드라마는 '스타 등용문'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작품마다 치열한 캐스팅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도 실력으로 당당히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신선한 얼굴이 있다. 신인 연기자 채수빈(21)이다. 9일 종영한 KBS 2TV 주말드라마 '파랑새의 집'은 그가 '파격'으로까지 평가됐던 캐스팅에 대한 우려를 연기력으로 떨쳐버린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한 무대였다.

제작진에게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도 한동안 어리둥절했다는 채수빈은 "방송 전에 촬영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믿을 수 없었다. 첫 방송이 되자 난 후에야 실감이 났다"면서 웃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채수빈이 8개월 동안 50부작을 이끌 수 있었던 것도 때 묻지 않은 신예의 당당함과 자신감 덕분에 가능했다. 그 시간을 되돌아보며 채수빈은 "이준혁, 이상엽, 경수진, 엄현경 등 선배님, 그리고 최명길, 천호진 등 선생님이라는 든든한 방어벽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사실 인방극장에서는 낯선 얼굴이지만 채수빈은 연극과 단막극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지난해 MBC '드라마 페스티벌-원더일기'와 올해 KBS 2TV 금요드라마 '스파이'에 출연했고,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에서는 조재현, 배종옥과 호흡을 맞췄다. 연극에 출연할 당시에는 하루는 배우로, 하루는 음향 스태

프로 변갈아 살며 현장 경험을 몸에 익혔다. 채수빈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현 소속사 대표에게 캐스팅 제의를 받고 연예계에 데뷔했다. 당시 막연했던 연기자의 꿈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채수빈에게 연기는 알면 알수록 어려운 숙제다. 그는 "연기는 누가 알려줘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롤모델을 만들어 따라한다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를 돌아보며 평생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랑새의 집'이 끝나갈 무렵인 7월, 프로 야구 삼성 구자욱과 휩싸인 열애설은 채수빈에게 작은 교훈을 남겼다. 당시 두 사람이 다정하게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연인이라는 오해를 받았지만 모두 "편하게 같이 다닐 만큼 친한 친구 사이"라며 관계를 부인했다. 채수빈은 "나도, 그 친구도 신인이어서 연기자와 야구선수라는 자리를 망각한 것 같다"며 "지금도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친구 사이지만 앞으로 언행에 좀 더 신경을 기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공개 연애에 대한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는 귀여운 투정이 섞인 불만을 늘어놓기도 했다. "앞으로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건 힘들지 않겠다"며 코를 찡긋한 그는 "'파랑새의 집'에 출연하면서 학창시절의 사랑에 대한 아픔과 추억이 큰 도움이 됐다. 그걸로만 만족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며 웃었다.

채수빈은 곧바로 활동 무대를 스크린으로 옮겨 상승세를 이어 나간다. 실종된 딸을 찾는 아버지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억하는 로봇의 만남을 그린 영화 '로봇, 소리'에 캐스팅돼 선배 연기자 이성민과 호흡을 맞춘다. 채수빈은 "상업영화 데뷔작인데 또 나를 발견하는 작업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신인 연기자 채수빈은 '파랑새의 집' 주연을 맡아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8개월간 50부작을 이끌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5년 8월 13일>



광복 50주년 특집 방송 잇따라

15일,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를 경축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무대를 펼친다. 하지만 역사와 침략전쟁의 '가해자' 일본은 여전히 그 지나간 참혹의 시대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 나아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현 정권은 집단자위권을 핵심으로 한 11개 안보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침략의 과거는 애써 망각한 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4일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가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되지만 국유를 향한 일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광복 50주년을 맞던 1995년 오늘, KBS는 1TV를 통해 특집 다큐멘터리 '일본을 다시 본다'를 방송했다. 당시 KBS 전주총국이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일본 국유세력과 제국주의적 야욕의 뿌리를 일망에 대한 송배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프로그램은 일제가 1940년 고대 일왕들의 신궁으로 활용하려 짓다 만 충남 부여 부소산의 지하비밀통로를 공개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제작한 김명성 기사는 "우리에게 일왕은 일제의 패망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존재이지만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신이다"면서 "국유세력이 한사코 침략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도 그것이 곧 전쟁을 명령했던 일왕에 대한 비판이자 거부라고 믿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1995년 8월 11일자 한겨레신문)

이와 함께 이 즈음 일본 국유세력의 움직임을 정면으로 다룬 특집 프로그램이 잇따랐다.

SBS는 15일 특집극 '국화와 칼'(사진)을 선보였다. 연기자 변우민, 강리나가 주연한 드라마는 일본 국유주의자 살해사건에 연루된 재일동포와 그의 무죄를 입증하려 나선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렸다. 변호사가 국유세력의 테러로 비극을 맞으며 일본의 우경화를 경고했다.

KBS 1TV '일요스페셜'은 20일 '패전 50년, 거꾸로 가는 일본 우익'편을 방송했다. 제작진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등을 인터뷰했다. 당시 연출자 임세형 PD는 "아무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했다"고 밝혔다. (위 보도 인용)

그 20년 후인 이달 12일, 현재 살아있는 12명의 일본 역대 총리 가운데 무라야마 도미이치, 간 나오토 등 5명이 아베 정권의 안보 관련 법안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나가소네 야스히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등 7명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진실이 아닐지, 적어도 일제 식민의 아픔을 겪은 우리에게는 말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왕 역할 소원 푼 송강호 영화 '사도' 영조 역으로 2년 만에 컴백

"처음 맡는 왕 역할이다. 소원 풀었다."
배우 송강호(사진)가 스크린으로 돌아왔다. 2013년 말 개봉한 '변호인'으로 1000만 관객 흥행을 거두고 2년 만이다.

송강호는 9월 중순 개봉하는 '사도'(감독 이준익·제작 타이커픽처스)에서 조선의 왕 영조를 그려낸다. 앞서 '변호인'에서도 실화와 실존인물에 기반을 둔 이야기를 풍금하게 완성해 흥행에도 성공한 그가 다시 역사 속



인물을 맡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사도'는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에 관한 이야기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영조를 그린다. 그동안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해 대중에게 더 없이 낯익은 인물이지만 송강호는 "90% 이상 사실 위주로 구성된 돌직구 같은 사극"이라며 "비약이나 해석의 확대, 심리적인 과장이 아니라 사실 중심으로 현실적인 영조의 모습을 보여 주려 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최근 진행된 '사도' 모니터 시사회를 통해 송강호는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새삼 기대를 더하고 있다. 근엄한 군주로 각인된 영조를 특유의 여유와 극적인 카리스마로 표현했고, 특히 70대 노년의 모습과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가족단위 관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추석 연휴에 '사도'를 내놓는 송강호는 10월께 또 다른 영화 '밀정' 촬영을 시작한다. 일제강점기 항일 무력독립단체 의열단의 활약을 그린 영화다. 제작비 100억원 규모의 블록버스터란 점에서 송강호를 향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 빅 마우스

● "다름은 가수와 별로 기대 안했다." (배우 고두심) 12일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별난 며느리'의 기자간담회에서, 가수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그의 연기에 놀랐으며.

● "김수미 선생님, 둘이 있을 때는 욕 안한다." (방송인 박명수) 12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김수미가 KBS 2TV '나를 돌아봐'에서 자신에게 하는 욕 때문에 밟아지는 논란을 언급하며.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30419-증-42065호

랑랑한 자싱감!

남성 수술 상담

음경 길 이 + 귀 두 조루수술

★주사요법 확대
★대체 진피이식술
★포경·무도정관수술
★각종 이물질 제거 (바세린 등)
★음경만곡증 (성기힘) 교정술
★발기부전수술 (굴곡형·평창형 시술로 성생활 가능)

합리적인 비용
적은 흉터 최소절개
풍부한 경험

※ 수술 당일 샤워, 일반적인 생활 가능

천호역 뉴맨남성의원

02)477-7523

위치 : 5호선 천호역 2번출구 한국투자증권 3층

www.198282.net

신음소리에서 과성소리까지!

명기

외로운 밤~♡

외로운 남성들을 위로해주는

명기가 최고야

명기 이의 제품은 저가품 중국산입니다.
국내산 폴리우레탄으로 제작 절대 무독성이며, 촉감이 부드럽고, 반백이 우수, 휴대하기 간편하며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성인용품점이나 시중에 없는 국산품입니다. made in korea

★국내최고의제품절대 터지지않습니다★

실물보다 더 섹시한 공기인형 "명기" "명기"와 놀다보면 날 새는줄 모릅니다.

제품문의 1577-4101 / 010-6380-5877

CARIANO 24K PREMIUM JEWEL WATCH

카리아노24k프리미엄보석시계

CARIANO 24K

3기압 방수처리와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해 흠집이 나지 않는 카리아노24K 프리미엄보석시계

남녀 각 → ₩99,000원
→ ₩59,800원

남녀 1세트 → ₩198,000원
→ ₩119,600원

일본 세이코 무브먼트 사용

- 금장 (전체 24k 금도금)
- 유리 흠집이 잘 안나는 사파이어글라스 사용
- 3기압 방수처리로 물이 들어가지 않음
- 베젤(유리주변)류빅 : 남성용 36개, 여성용 24개씩 입
- 인조루비 각 4개씩 입
- 빛살무늬 문자판사용, 문자판 시간표시
- 라인스톤 : 남성용 12개씩 입, 여성용 11개씩 입
- 시계줄 : 스텐레스 핀밴드 사용
- 스텐레스 스틸백 사용
- 남성용-날짜 여성용-날짜
- A/S 3년간 무상으로 해드리며 3개월 안에 불량 시 새 제품으로 교환 (보증서첨부)

※전자식(발태리)시계 : 발태리수명 2~3년

세트 또는 2개 구매 시
한미보석감정원에서 보증 받은
양식 진주목걸이 증정

상담문의 1577-8038